大巡思想의 先·後天史 문제

- 자연법과 변증법 중심으로-

金 永 斗*

目 次

머리말
Ⅰ. 동서시대史 구조와 변증법 유형차이
Ⅱ. 漢武帝의 北伐成功과 세계史 圓環 운동
Ⅲ. 서양 兩劒論의 근대적 개편과 그 사실논리 合理性
Ⅳ. 동양의 同化主義的 胡漢交替史의 경우
Ⅴ. 세계史 圓環운동과 그 귀추
Ⅵ. 孔荀大同, 至平사상이 뜻하는 것
결 어

머 리 말

本稿는 요전에 제출한 「甑山思想과 그 世界史的 展開」에 대한 속편으로서 요전 것이 증산이후를 문제삼은데 대하여 그 이전을 다루어 증산사상의 全면모를 엿보기로 한다. 그 분이 말한 이른바 先·後天史관계 면을 살펴야 할 불가피의 과제가 되는 것으로 그 선천사 방대가 요전 것 比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문제점 중심으로 맥락 체계를 가리어 그 관계를 실증적으로

*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법학박사

약술하기로 한다. 이것이 자연법과 변증법 관계가 되는 바임은 요전에 밝혔기로 再論치 않기로 한다. 싫건 좋건 또 인간의 노력 여하를 막론하고 역사가 움직이는 필연면이 있 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것이 바로 자연법과 변증법이며 물론 인간의 노력이 거기에 대해서도 막중한 역할을 한다. 이를 증산이 해원상생토록 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본고에서는 되도록 이 면은 서양학자들의 지적을 例證삼아 추론하기로 한다. 그럴 필요가 증산사상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모두가 그러한 用意임을 말하여 둔다. 原著 또는 참고문헌들은 되도록 이 면의 편의로 본문중에 지적하기로 하되 대부분이 우리들 良識에서는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아무튼 증산의 사상처럼 역사의 실제 자취 면에서 검증해야 할 것은 없다고 본다.

Ⅰ. 동서시대史 구조와 변증법 유형차이

인간도 자연환경과 생활조건에서 규제되는 삶의 경쟁인 역사적 동물인 것이다. 그 동서세계史 변증법이 上古서부터 유형을 달리하였다. 日出 東方을 향하여 수많은 종족들이 몽고를 거쳐 만주, 중원의 방대한 농토권(農土圈)을 경쟁한 역사와 中亞 사막지대 유목종족들이 명일을 기해 서방 지중해를 동경한 직선달림 투쟁史였음이 동일한 유형일 수 없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다.

전자가 우순풍화를 염원하고 生活안정을 목표한 영역확대 경쟁이었음에 比해 후자는 選民 神으로 투쟁한 직선달림인 흥망성쇠 교체史 였었다.

서양이 고대가 인간자유주의, 중세는 神의 절대주의, 근대는 고대를 회고한 중세 극복의 겔만族 근대화(O.girke의 中世 정치사상史 지적) 달림이었던 것과는 달리 동양 中原에서는 서양 고대, 중세, 근대가 上古서부터 복합적으로 얽힌 복합시대사 복합변증법 세계였음을 서양학자가 지적하였다. 영국인 「웰스」가 그의 「世界小史」에서 서양의 고대 희랍, 로마의 都市국가(폴리

스) 같은 것은 서기 전 1700년인 중국 殷代 통일왕국에 이미 있었다고 하였다. 서양 중세의 農奴 封建制는 중국의 周代 千年王國에서는 井田制 정비인 諸侯 封建制로 나타났었다. 그 井田制를 파괴한 諸侯들의 독립국가 形成으로 周의 平和統一이 파괴된데서 春秋時代가 나타나 그 14개국→五覇투쟁인 戰國時代가 6국 통일인 秦始皇의 天下統一이 된 것이 흡사 서양세계 近代기의 列强투쟁이 20세기의 세계대전이 된 것과 같은 것이다. 서양 중세의 諸侯국가들이 농노 봉건제를 자유도시化하여 근대기에 西力東侵으로 전세계를 장악하려하였다. 그 같은 요인, 같은 구조, 같은 투쟁이 동양에서는 춘추 전국시대에 연출된 것이다. 20세기에 독재 나치즘 히틀러가 타도되듯이, 폭군 秦始皇도 타도된 것이다. 그러나 동양의 경우는 15년간 단명이나마 이른바 天下統一을 이룩한 것과는 달리 서양에서는 실패하였다.

그 동서 自然法 사상, 변증법 유형이 다른 것으로, 동양에서는 天地人 三才와 음양五行이 三皇五帝와 中央土상징인 黃帝로 나타나 河圖, 洛書니 神農, 伏羲 등 穀物, 藥草, 選別과 八卦圖→周文王의 周易 384卦爻등 인간을 포함한 천지만물의 運氣 있을 수 있는 온갖 종형으로 나타나 生成化育 흥망성쇠의 윤회 相이기도 하였다. 이것이 黃帝때서부터 다음같은 사실이었다고 傳하여지고 있다.

黃帝에 항거한 蒼詰이 풍운요술로 抗戰한데 대하여 神人이 나타나 황제에게 指南車를 제공하여 방향 감각을 正確케하므로서 蒼詰을 敗北케 했다는 것이다. 그 蒼詰은 象形문자(漢字)를 창작했다고도 黃老學이 언제부터인가가 알 수 없는 요컨대 老子 도덕경 소식인 것이다. 그러나 堯舜代부터는 틀림없는 正史인 것으로 堯帝때에는 野老가 「帝의 힘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냐」고 태평 擊壤歌를 불렀다 한다. 순수 민주化, 민주주의 理想型인 것으로 그것이 사실이었음을 자연법 순수형으로 인정할 만 하다. 堯帝는 아들 丹朱가 있었음에도 民心이 九年治水인 舜에게 돌아간 것을 두고 帝位를 舜에게 禪讓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법칙의 極致를 최초로 실천수범한 것으로 帝位 禪讓때의 垂訓 「道는 微微하고 人心은 위태로우니 너는 그 中을 쥐라(允厥執中)」고 변증법 종합 해결인 中道를 時中적으로 行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孔子는 堯舜代를 大同세계라하고 夏殷周 三代를 小康時代라 하였

다. 小康時代서부터 桀紂 등 暴君이 나타나 易姓革命이 된 바임을 시사한 것이다. 그 段代가 東夷族 出身이고 周代가 오늘날의 중국 陝西省인 당대 西戎이라는 것이고 보니 上古서부터의 중국 복합종족, 복합시대사적 변증법 세계 역사 유형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 夏·殷·周 3代가 春秋戰國時代인 千年間의 天下大亂이 되어 暴君 秦始皇을 물리친 漢帝國 건설이었음이 서양 古代 希臘·로마전국시대가 로마의 통일로 나타난 것과 같다. 中世 게르만族의 구라파 세계 등장은 그 고대 로마의 멸망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그 동서史 변증법 발전相은 전혀 유형을 달리하였다.

Ⅱ. 漢武帝의 北伐成功과 世界史 圓環 운동

1. 漢武帝의 北伐成功과 로마의 포에니戰

北方胡族들이 중국을 侵入한 有史이래의 경험과 서양의 로마가 수행한 역사 경험은 십히도 數奇적 부합인 그러나 반대형이었다.

진시황의 만리장성 구축만하여도 北胡 突厥, 특히 匈奴族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것이었고 그 百姓들 膏血을 수탈한 暴君정치에 反旗를 든 초한전 劉邦 승리인 易姓革命 漢帝國 성립이였다.

漢帝國은 역대 帝王들이 和蕃公主 정책으로 胡族들을 懷柔코져 노력하였으나 그 모두가 실패하였다. 이에 대해 七代 漢武帝가 雪辱겸 그들 北胡의 뿌리를 뽑고져 친히 대군을 이끌어 三회 거듭으로 出征하였다. 그러나 1, 2회는 대패하여 武帝 자신이 捕虜가 되는 등, 구사일생으로 탈출하여 멀리 隱身까지 한 귀환에서 3回째는 방법을 바꾸어 匈奴族 이웃인 月氏國과의 협약으로 挾攻하여 匈奴族 근거지를 뒤덮어 겨우 風散시켰다. 이것이 漢武帝의 北伐成功인 것으로 明帝때에는 班超를 파견하여 중앙 아시아 경영이게끔 하였다. 胡族들을 중국 文物 교역으로 懷柔同化케 하려는 것으로 天山南北路는 이미 漢初에 張騫 개척이 되었었다. 중앙 아시아 경영은 거기에 이어 인도 洋沿岸과 海路를 개척하므로서 중국 문물교역이 멀리 페르시아까

지 이르른 것이다. 이에서 中亞 호족들이 중국 침입을 단념하여 侵手를 西北方으로 돌린데서 中世 구라파 세계가 등장한 것으로 그 상황 진전이 어떠한 것인가는 후술할 것이다.

古代, 中世의 서양세계 진전과 동양세계 진전은 심히도 對蹠적이었다. 정복 對 방위인 그러한 것으로 그 數字노름도 심히 수기적인 부합이었다. 古代 로마는 漢帝國과는 달리 처음서부터 征服型인 것으로 유일히 남은 地中海 南岸의 강대국 카르타고를 무찌르고저 三回 포에니戰을 강행하였다. 즉 漢의 防衛型 로마의 征服型인 것으로 漢武帝의 北伐成功 3回戰이었던 것처럼 로마도 포에니 戰 3回 수행으로 겨우 승리하였다. 그러나 그 성질과 유형이 전혀 달라 漢武帝는 同化主義的 회유, 防衛형이었음에 比하여 로마는 정복적 挑戰型인 것으로 로마 포애니戰도 1, 2회는 도리어 대패하였다. 그러나 카르타고의 영웅 「한니발」이 雪辱아닌 복수로 정복자의 뿌리를 뽑고져 대군을 이끌어 海戰에는 약한 탓으로 멀리 스페인의 피레네 산맥을 넘는 迂廻작전으로 로마에 진격하였다. 이에 대해 로마는 거짓으로 敗한 양 으로 假裝하여 알프스 산맥까지도 넘게한 疲極化 作戰으로 로마 직전 「자마」까지 몰고와서는 최종의 反擊一戰으로 카르타고를 大敗케 하였다. 거기서 도망친 「한니발」을 索出 살해하고서는 한니발 없는 카르타고를 세번째에는 복수위의 복수戰으로 정복하였다. 카르타고 부녀자들과 아동들이 石戰으로까지 최종 항전한 것을 屠殺하고서는 카르타고 都城을 불살랐다. 征將小 스커피오가 그 炎上하는 都城을 바라보며 詠嘆하였다. 「바빌론과 앗시리아도 멸망하였다. 다음 차례는 『로마』이련가!」

과연 로마는 共和政 3頭정치가 帝政으로 昇華하여 共和주의적 帝國主義가 되어서는 暴君 「네로」가 스스로 로마에 放火하여 그 炎上壯嚴을 노래 불렀었다.

2. 中世 구라파 세계 등장과 게르만族 農奴封建制 구축

중세 구라파 세계는 漢武帝의 北伐成功과 中亞경영에서 특히 匈奴(훈)族이 중국에의 侵入을 단념하여 侵手를 西北方으로 돌리어 오늘날의 南러시아를 거쳐 게르만族의 故土를 찌른 難을 피해 게르만족이 大擧 南下한데서 등

장한 것이다. 그들은 로마의 傭兵隊로 로마 제국주의에 깃들어 서기 479년에 傭兵隊長인 오도아켈이 국경수비軍을 이끌어 로마를 反擊한므로서 로무루스 황제를 廢位케 하여 멸망케 하였다. 그리고는 서기 9, 10세기까지 거듭 거듭 게르만族 大擧南下로 로마 뽄세로 原住民을 征服, 農奴化시켜 家臣들 分封, 封建制로 나아갔다. 그들 구라파 세계 定住가 서기 6, 7世紀였음에 비추어 그 封土封建制가 얼마나 줄기찬 구축이었는가를 알 수 있다. 즉 로마 帝政말기에 피정복族들을 家臣들 封土封建制로 통치케 한 것을 본뜬 것이었다. 로마 帝國은 동서분할로 통치하였거니와 이것이 皇帝없는 西로마 敎皇이 東로마 皇帝에게 書翰을 보내어 靈權 우월을 주장한 兩劒論 세계로 등장한 것이다.

3. 兩劒論 세계의 實相과 중국의 井田制

로마帝國이 東西로 분할되었듯이 동양의 漢帝國은 前, 後漢으로 이어졌다. 그 모두가 封建制였기는 하나 그 實相이 전혀 달라 서기 494년에 西로마 敎皇「게라슈스」가 東로마 帝國의 황제「아나스타슈스」에게 兩劒論 書翰을 보내어 이 세상에는 靈, 俗兩權이 있어 서로가 간섭하지 않기로 神이 兩劒을 分與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靈權 우월을 주장하여「靈權 聖職者가 속권王을 최종 심판日에 神에게 보고」할 권능자라고 다짐한 것이다.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가는 다음과 같다.

靈權자들이 비잔틴帝國의 속권皇帝 통치 탁월에 買受되어 농노 수탈로 나아가는 趨勢가 갈수록 深化하였다. 位階 위의 位階制로까지 農奴를 수탈한 華麗 官職에 나아간 그러한 것으로 敎皇 게라슈스는 그것을 최고 책임자인 皇帝 아나스타슈에게 糾彈한 兩劒論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나스타슈스를 비롯한 역대 帝王들은 그것을 문제삼지 않은 갈수록의 타성이 된 것이다. 왜냐하면 황제없는 西로마 교황 治下서도 그러한 被정복족들에 대한 수탈이었음을 비웃듯이 문제를 삼지 않았었다. 즉 東로마 제국이 그러한 교황 양검론에 굴복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이 양검론이 영과 속에 걸친 자가모순 당착인 灵俗양권의 구조야말로 서양 中世는 물론이거니와 中世를 극복한 게르만족의 이른바 古代 회고인 근대화 민주주의에서는 보다 심각한 충격갈

등으로 나타났다. 아무튼 양검론은 중세만하여도 그후에는 有耶無耶가 되었었다.

동양의 봉건제는 중국을 침범한 胡族들을 同化主義的으로 懷柔한 封土 封建制로서 井田制원리로 所得均衡이게한 동시에 통일 宗主國에 바치는 세금은 井田制 中央吩田을 공동 경작한 것을 납부토록한 최소한이었다. 즉 둘레의 농토는 농민에게 均等 분배하여 동일 면적이므로 소득의 차이가 있을 수 없도록 그 경작 산물은 농민들의 全적 소유이게끔 하였다. 8가구 농민들은 그나름 중앙 구분전을 공동경작하여 각기 나라 국세로 바치게금 한 것이다. 즉 그런 식의 宗主국에 대한 위계제 봉건제도 실천이게금 하였다. 이것이 상고 舜의 9년치수 농토 균여가 주대 정전제 실시로 황금기가 된 것을 춘추시대서부터 제후들이 수탈하여 패권경쟁으로 나아가 전국시대에 진시황은 그 정전제를 완전 파괴하여 天下大 상업자유도입으로 부국강병하여 천하통일을 한 것이다. 그 폭군정치를 혁명한 漢제국은 정전제를 그때까지의 복합시대史 응용으로 부활케하였다. 이것을 王茶가 주대 순수 정전만희로 되돌린 혁명 혼란이었음을 後漢 光武帝가 타도하여 前漢을 이은 것이다. 그런데 서양 로마와 중세 게르만족의 봉건제는 전연 유형을 달리한 정복형 封建制 양검론 투쟁이기도 한 것이다.

4. 中亞胡族들의 양검론 세계 정복과 세계史 圓環운동

터어키(突厥)族이 기독교 聖都 예루살렘을 包圍한 것을 西로마 敎皇이 응징코져 10세기 말에 敎皇權 지휘의 十字軍 同盟을 200년간 전후 7回나 出征시켰지만 매양 失敗하였다. 13세기 初에는 蒙古族의 世界征服이 구라파 세계를 황무지로 유린하여 成古思汗 사망으로 자진 回軍한데서 구라파세계가 蘇生하였었다. 그리고 十字軍원정 실패 귀로에 中亞에 담긴 中國 文物을 수입한데서 自由都市가 발흥하여 이른바 근대화, 민주주의 계기가 트인 것이다. 14세기의 문예부흥도 그러한데서 자리잡힌 것으로 古代 회고 中世극복인 근대화, 민주주의는 서양세계 古代·中世 단순 변증법 시대사가 비로소 복합 변증법으로 얽힌데서 트인 것이다. 兩劒論 세계 최종 牙城인 비

잔틴제국을 멸망시켜 서양 세계 古代, 中世를 사실상으로 閉幕케한 것은 有史以來 匈奴族과 함께 중국을 침범한 突厥족 部派인 오스만투르크에 의한 것이었다. 難攻不落인 都城 콘스탄티노플을 長세월동안 포위한 끝에 드디어는 1453年 5月 13日 금요일에 白旗를 들고 投降케 하므로서 서양세계 古代, 中世는 終焉한 것이다.

Ⅲ. 서양 兩劒論의 近代的 改編과 그 사실논리 合理性

첫째로 서양 근대기의 西力東侵 圓環 운동은 몽고족이 중국까지도 정복하여 유사이래의 最大帝國으로 중국에 君臨한 大元帝國에서 자극된 것이다. 3대 世祖(구비라이)에게 마르코폴로가 로마 敎皇의 親書를 받들어 실크로드와 인류발상지 파밀고원을 거쳐 奉呈하여 귀환한 「東方見聞錄」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世祖의 寵愛를 받은 그가 동양을 「黃金의 나라」라고 소개한데서 그 황금의 나라를 동경하여 15세기의 世界發見시대가 되었다. 이것이 그들 근대기 植民帝國 膨脹 水陸 세갈래(南 해양, 北 大陸, 수에즈 운하) 달림으로 세계사 원환 운동을 하였었다.

이른바 近代化, 민주주의는 十字軍원정의 실패 귀로에 中亞에 담긴 중국 文物이 구라파 세계에 소개된데서 트인 것이다.

伊太利 남부 지중해의 연안에는 그 문물 交易의 자유도시가 千개를 넘었다. 그리고 그 자유도시의 商業 資本力이 急進 北上하여 16세기 한세기 동안에 몽고족이 황폐화시킨 구라파 일대를 一圓적으로 自由도시 普遍화 이게 금 했다는 것이다. 古代 로마를 회고하는 中世극복인 게르만族 近代化·민주주의는 그 자유도시에서 急進된 것이다. 이에서 中世 兩劒論이 近代化로 개편되어 그 나름 西力東侵으로 나타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1. 마키아벨리의 「君主論」

첫째로 이태리人 마키아벨리의 「君主論」(1512)이 불란서, 스페인, 독일 등 당대 列强이 그들 宗主權자인 로마 帝國主義를 그 本고장인 伊太利 장악으로 覇權하고저 이태리 내부의 五個國 분열과 權謀術數로 결탁한 出征이었다.

마키아베리는 그 權謀術數에 이기는 권모술수 위의 권모술수로 조국 이태리를 「統一과 팽창인 국가 德」으로 있그려는 그 사실논리 합리성을 주장하였다. 불란서, 스페인, 독일이 이태리 내부 5개국 분열 투쟁과 결탁하여 이태리를 장악하려고 한 프라그마티즘적 마키아베리즘에 대하여 마키아벨리는 로렌조 公에게 君主인 限, 못할일에 따로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獅子의 위엄과 여우(狐)의 교활(狡猾)을 兼全하여야 한다」고 獻策하였다. 「獅子는 陷穽에 빠질 염려가 있고, 여우는 늑대에 먹힐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당대 暴君 皇帝 볼지어를 殘忍하였다고 評하는 것은 不當하다 하였다. 반항자들을 속임수로 유치하여 학살한 방법에서 로막나를 함락하여 統一과 平和를 이룩할 수 있었기 때문이란 것이다. 요컨대 目的을 위하여는 手段과 方法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그 나름 權力 경제론적인 合理性 주장인 것이다. 그것이 실용주의가 되는 프라그마티즘이자 權謀術數인 마키아베리즘을 任意自在한줄 아는 君主인 자의 資格이라는 것이다. 즉 불란서, 스페인, 독일과 이태리 내부의 프라그마티즘적 마키아베리즘 결탁을 이겨 祖國 이태리의 옛 로마帝國 영광을 「국가德」인 「팽창과 統一」이게금 하자는 것이고 그나름 사실논리 合理性 부합인 그러한 것이다. 그는 君主인 자는 柔善에서 모든 것을 喪失하고서는 분격하여 진짜 暴君이 되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된다고 柔善인 로렌츠公에게 忠告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마키아벨리 自身은 君主主義자가 아닌 共和主義자 이었음을 그의 또하나의 著書 「로마史論」이 증명한다. 옛날 로마공화주의적 제국주의를 동경한 것이다.

여기에 근대화, 민주주의인 마키아벨리의 소식이 있는 것으로 그는 사실 과거에는 프로렌스 共和政에 獻身하여 燦赫한 業績을 남긴 것이었다. 그 당시의 로렌츠公이 이태리 내부의 분열 마키아베리즘 물결에서 君主가 된

王政을 두고 공화주의에도 군주주의에도 충성한 마키아벨리이기도 한 것이다. 이것이 古代 로마 공화주의가 帝政으로 승화하여 帝國主義 국가 팽창이 된 그 사실논리 합리성을 추구한 그의 「君主論」이었다.

2. 구라파 세계 16세기의 宗教改革과 世紀半長의 宗教戰爭의 경우

과연 마키아베리즘은 兩劒論 近代化인 16세기의 종교개혁, 종교전쟁으로 이제는 영권을 속권으로 통합한 무려 150년간의 血鬪史 연출로 나타났다. 구라파 全體가 구교 전제 군주주의 대 신교 민주주의로 兩分된 不可兩立적 투쟁이 되어 마키아벨리의 「君主論」지적 같은 것이 실제로 연출되기도 하였었다.

불란서의 구교 전제군주가 칼빈 신교주의 抗拒자들을 誘導밀폐하여 대량 虐殺한 바아소로뮤 사건이 터졌다. 이에서 「폭군방벌證論」이 著者 未詳인 채로 나타나 그 지적에 따르면 神과 君主간의 제 1계약과 君主와 人民간의 제 2계약이 있다는 것이다. 神과 君主간의 계약 내용이 무엇인가가 아리송한 채로 인민을 학살한 군주는 의심의 여지 없는 폭군이므로 방벌해야 한다는 취의인 것이다. 사실 영국에서는 부햐난이 暴君放伐을 주장하였고 구교 메리女王은 신교 개혁주의자인 존.녹스에 대해 死刑선고를 하였다. 그러나 녹스는 도리어 王에게 死刑선고를 한 등, 특권 토지 귀족층과 결탁한 구교 전제주의 對 자유도시 신흥 시민층 신교 개혁주의간의 血鬪史가 연출된 것으로 이것이 구라파 전체를 덮어 미만하였으니 다음과 같다.

신교주의 개혁은 독일인 「루터」에 의해 先峰되었고 불란서人, 「칼빈」 신교주의가 구라파 전체를 석권하였다. 「루터」는 인간 영혼이 神에 융합하는 신비주의였었음에 비하여 「칼빈」은 『神의 뜻이 인간이성(理性)에 아로삭여졌다』는 그 나름 합리주의 였었다. 그러나 그 「칼빈」은 그의 친구이자 칼빈主義를 열렬히 신봉한 스페인人이 스페인 구교 전제주의자에게 항거하다가 도망쳐 亡命을 요청한데 대하여 神의 戒命인 「受働적 복종 의무」를 배반한 반역자라고 도리어 처형하였다. 이것이 엄격한 律法설정으로 제네바에

「神市」를 설정한 칼빈의 所行이었다. 그러나 그 자신은 불란서 구교 전제군주주의자에게 그의 信徒들을 抗命토록 지도사주 하였다. 「王權神授」라는 구교 전제군주 주장에 대하여 「受働적 복종 의무」 여부를 任意 自在한 칼빈 神市 실천인 마키아베리즘인 것이다. 즉 神의 뜻이 그러하다는 카리스마 「칼빈」의 공포相인 것으로 굳이 그 뜻을 해석하기로 한다면 다음과 같다. 「마키아벨리」가 「君主論」에서 조국 이태리의 팽창과 통일을 불란서, 스페인, 독일의 侵入에 대하여 權謀術數 위의 權謀術數로 이기는 마키아베리즘 주장이었음을 「칼빈」은 祖國 불란서를 두고 이제는 영속양권 통합 神意주의로 실천한 것이다. 이를 두고 던닝교수가 선언하였다. 「마키아벨리의 敎義는 그의 이름이 기독교의 모든 종파에 의하여 詛呪되었기는 하나, 그동안에도 그의 영향력은 발휘되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혁명에 의하여 성공되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된 後에서야 마키아벨리의 哲學적 깊이와 실제 정치적 聰明이 公開적으로 승인 되었던 것이다.」 (Dunning, Political Theories)

3. 『구로튜스(H. grotius)』의 「전쟁과 평화의 법」

그러나 마키아벨리의 철학적 깊이와 실제 정치의 聰明은 공개적일 수 없는 神秘적 恐怖임을 서양세계 자체가 증명하였다. 王權神援說인 구교 對 暴君放伐인 신교가 구라파 세계를 兩分하여 세기 半長인 150년간의 血鬪史로 구라파 人口가 半減되고 到處마다가 폐허화 되었기 때문이다. 和蘭人 天才 「구로튜스」가 「戰爭과 平和의 法」(1651)에서 「神이라 할지라도 둘(2)의 제곱이 넷(4)이 아니되도록은 못하는 법」이라고 序文에서부터 폭탄선언을 하였다. 즉 제 아무리 神의 뜻이라는 신구교 저마다의 主義, 주장일지라도 戰爭의 悲劇을 神인들 달리 할수는 없는 現實 증명이 아니냐고 당대 종교전쟁에 項針한 것이다. 그는 萬民法(국제법)이 自然法에 속하는 바임도 지적하여 둘의 제곱이 넷이 되는 것이 자연법이며 이를 神이라 할지라도 달리 어이할 수 없다고 깨우친 것이다. 즉 王權神授니 暴君放伐이니 등, 저마다가 神이된 카리스마 대결 殺人 행위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참된 神의 뜻일수도 인간의 의로운 행위일수도 없는 惡因惡果인 현실증명이 아니냐는

것이다. 「구로튜스」는 그것을 자연법의 數理 과학으로 증언한 것이다. 과연 신구교 群團으로 兩分된 150년간 종교전쟁은 저마다가 살아 남기 위해서도 休戰 형식으로 저마다의 넷 版圖로 되돌아 간 웨스트화리아 조약으로 종결되었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는 속권입장 灵權 통합인 국가 팽창, 통일 경쟁인 민주주의 이름아님이 없는 카리스마 혁명 流血史로 이어졌다.

4. 17, 18세기의 社會 契約論的 민주주의와 레바이탄("Leviathan"-국가) 運身

17世紀의 영국 淸敎徒 革命, 18세기말의 불란서 大革命, 美國의 독립혁명, 19세기 불란서의 2, 7월 혁명, 20세기의 蘇聯革命, 나치즘 革命, 兩次世界大戰 그모두가 민주주의 이름 아님이 없는 국가 膨脹 통일인 進化적 革命이자 革命적 進化인 「레바이탄」국가 流血 運身으로 나타났다. 그것이 16세기의 著자 未詳인 「暴君放伐證論」의 君主·人民간의 제2차 契約論적 민주주의를 실천한 모습은 다음과 같다.

영국의 17세기 淸敎徒 革命이 영국인 「홉스」의 저서 "레바이탄"(1651)으로 나타났다. 구교 전제 군주주의에 항거한 영국 청교도 민주주의 혁명 영도자 「오리붜.크롬웰」(O, Cromwell)은 行住坐臥, 聖書의 구절을 외운 카리스마였었다. 국왕 찰스 1세를 처형한데 대해 反旗를 든 아일랜드 王黨派 反亂을 바람처럼 나타나 무찔른 칼끝마다 「神이 하는 일」이라고 외쳤다 한다.

즉 크롬웰 自身이 神이 된 철저한 카리스마행위인 것으로 그는 議會勢力인 시민사회 中산급 水平派와 무산층 穿地派를 추방하여 토지특권층 獨立派 영도자로서 軍事獨裁로 나아갔다. 「航海條例」 등 後日의 영국 植民帝國-세계 1/3을 차지한 覇權 승리이게끔 한것이다. 그 청교도 개인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혁명을 「토마스 홉스(T. Hobbes)가 「萬人 대 萬人의 투쟁」이라고 결국은 1인 독재자의 명령 一下 무조건 복종인 萬人平行선 달림일것이라고 嘲笑한 것이다. 그 상업 자유주의인 국가 팽창, 크롬웰 독재일 것이라고 그 나름 幾何學적 분석 정확성을 다한 것으로 그 홉스의 予言은 그대로 的中하

였다. 그런데 주목할 일은 홉스가 국가로 비유한 "Leviathan"은 구약에 나타나는 怪獸로서 神이 창조한 聖獸이기도 한바, 神은 그 "Leviathan"을 鐵槌로 쳐, 滅殺했다는 기록이기도 한 것이다. 아무튼 홉스의 "Leviathan" 寓意는 심히도 심각한 것으로 홉스 자신이 철저한 구교전제군주주의자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거니와 홉스는 인간을 性惡으로 보았다. 「原罪」의 아들로서 날때부터의 그러한 것이라고 확염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구신교간의 불가 양립적 혈투사가 사회경제 및 정치에 걸쳐 그 얼마나 자체 딜레마적인 엇갈림과 충격 갈등상인가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홉스」의 「레봐이탄」에 대한 答이 다같은 영국인 「죤. 록크(J. Locke)」에 의하여 이뤄졌었다. 그는 「政府二論」을 펼쳐 「휠머」의 王權神援說을 시대착오적인 妄說이라고 비판하고서는 영국의 名譽革命을 옹호하였다. 즉 영국의회가 크롬웰의 軍事獨裁가 구교 전제군주주의 比가 아닌 공포성임에 놀라 독일로부터 국왕을 迎入하여 王政回復이게끔 한 議會자체를 支持한 것으로 실은 中産層 시민사회 自由民主主義를 옹호한 것이었다. 즉 구교 전제군주주의와 결탁한 토지 특권 귀족층을 대표한 크롬웰 「獨立派」가 아닌 신흥 시민사회 中産층 「水平派」를 옹호한 것으로 그는 국가를 行政, 司法二權分立으로 구교 전제군주주의도 청교도 議會민주주의 독재도 될 수 없도록 하였다. 몽테수큐의 三權分立論이 거기서 영향된 것임이 크게 주목할 일이거니와 「生命, 自由, 資産」을 인간의 날때부터의 天賦權이라 하였다. 「所有權에 관하여」(On Property)에서는 勞働價値를 주장하였다. 즉 원시 자연시대에서는 自然 萬物을 共有하였다. 그러나 인간이 그 自然資源에 勞動을 加하여 自然物이 아닌 生活資産인 商品化를 하면서부터는 그 商品은 勞働價値자에게 所有權이 귀속된다고 한 것이다. 즉 그 商品은 원시 自然物이 아닌 形相, 성질 共히의 變形變質物이기 때문이란 것이다. 이 록크의 政府二論주장이 불란서人 「잔 자크. 루소」(J. J. Rousseou)에 의하여는 구교 전제군주주의와 신흥 中産層 自由民主主義를 함께 배척한 농민 직접민주주의로 나타났다. 록크가 인간이란 性善만도 性惡만도 아닌 중간자라고 본 것과는 달리 인간을 철저한 性善이라고 본 그러한 것으로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농민만이 性善의 「一般意思」자라 하였다. 이에 비해 전제군주와 토지 특권층 및 시민사회의 中産자들은 모두가 利己적인 「特殊意思」이기 때문에 당연히 농민만의 직접민주주의적 전체주의 정치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社會계약」 著書주장을 한 「루소」는 더구나 국가라는 것은 「특수의사」자들이 순박한 농민을 속여 연원의 自由, 平等, 安全을 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도리어 영원의 수탈을 합법 정당화 시킨 국가를 만들었다는 것이다.(不平等起源論)이 루소사상이 당대의 구교전제 군주주의와 시민사회 민주주의를 함께 뒤엎는 어떠한 平等민주주의인 革命위의 革命主義인가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과연 進化와 革命이 뒤범벅이 되는 進化적 革命이자 革命적 進化이기도 한 구라파 세계 血鬪史가 뒤따라 그 동양으로 向한 西力東侵에서 20세기 世界兩次大戰이 연출된 것이다. 즉 "Leviathan"들이 machiavellism 的 pragmatism이자 pragmatism 的 machiavellism 이기도 한 팽창 경합 충격 복합중첩인 그러한 것으로 그 실상 과정은 다음과 같다.

17세기의 영국 청교도 혁명이 18세기말 불란서 大革命에서는 제3민주주의가, 제4민주주의인 쟈코반데모크라시로 발전하여 국왕 처형이 거듭 연출되었는가 하면 미국 독립이 영국 청교도 혁명에서 파출되었었다. 이 17·8세기 현상이 19세기에 들어서는 산업혁명과도 함께 불란서의 2월 혁명, 7월 혁명, 나폴레옹 전쟁, 후진 민주주의 궐기등 그 모두가 서로간에 엇갈여 충격하는 것을 기독교 王國으로 수습통일 한 랍시의 힛틀러의 兩次大戰 도발이었다.

5. 동양 중국으로부터 영향된 18세기의 서양 啓蒙思想, 産業革命

18세기의 서양 啓蒙思想과 産業革命이 14세기 이래의 동양 중국 유교와 文物 영향에 의한 것임을 서양학자 大家들이 다음 같이 지적하였다.

불란서 人 「부륙케」는 18세기의 啓蒙사상 선봉자 「볼테루」가 예수의 사진

을 걷어 치우고 孔子의 초상화를 代替하여 朝夕으로 「人類를 구제할 참된 聖者」라고 예배했다는 것이다. 「儒敎大觀」(後藤末雄譯) 사실 中國의 古典들은 일찍부터 불란서에서 번역된 것으로 16세기의 신교 종교개혁亂을 피해 구교 선교사들이 동양의 중국에 와서 중국의 문물에 놀라 그 고전들을 불란서에 소개한데서 이뤄진 것이다. 독일의 「릿터」교수는 서양근대화인 온갖 科學文明이 중국 文物을 十字軍 실패 귀로에 수입한데서 이루어진 것임을 다음같이 지적하였다. 인쇄술, 火砲, 더구나 造船術과 羅針盤 등 서양의 세계 발견과 西力東侵 등 利器들은 이태리에만 秘藏되어 마키아벨리의 「君主論」을 산출하였다. 14세기의 문예부흥이 중국문물 도입에서 19세기의 産業혁명은 14·5세기의 영국 모직물 생산기계에서임도 중국의 방직술에서 영향된 것임을 밝혔었다. (G. Ritter, Die Neustaltung Europasim 16 yahrhundert, 1950) 영국의 한쇼(B. J. C. Hearnshow)교수는 그의 編著인 「反動과 再構成 시대의 社會, 政治的 理念」이라는 全 6卷(1949) 序文서부터 西洋세계의 近代化, 민주주의 全 責任은 中國에 있다고 선언하였다. 한편 美國의 벡커(C. Becker)교수는 서양 근대 민주주의가 全體主義(제국주의) 공동 底流인 全體主義적 민주주의이자 민주주의적 전체주의라고 그의 "Modern Democracy"에서 지적하였는가 하면 영국史學 마리오트(J. A. R. Mariott)는 「독재주의와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는 원래가 전제군주 또는 독재자 것이라는 史적 분석을 하였었다. 과연 美國의 「세이반(G. H. Sabine)」교수는 그의 大著 「政治理論史」(1958) 말미 결론에서 民主主義가 善意와 忍耐 것이라면서도 「힘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나 힘의 필요면을 全적으로 拒否하는 것은 아니다」하였다. 그리고 「心理的이기 보다는 오히려 知的 體系와 技術」이라고 美國의 「프라그마티즘」을 옹호하였다. 그 마키아베리즘과의 관계는 上述한바 있거니와 과연 다같은 미국의 「프르드릿히」(C. J. Friedrich)교수는 「니이체(Nietsche)가 만일에 反기독교적으로 20세기의 非道德的인 面을 前提한 것이라면 그는 "Leviathan" 전체주의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新敎主義」「프로테스탄트」가 다른 어느 大宗敎보다도 더욱 그러한 확실성을 부여했다.」고 지적하여 그 책임은 「서양 기독교 사회의 철학들과 pragmatism, Hegel 主義, 實存主義 등에 못지 않게 있다.」고 大선언 하였다.

그리고는 「민주주의는 서양세계에서는 더 이상 희망을 둘수 없고, 동양 세계에만 기대를 걸수 밖에 없다.」고 서양세계에서는 그 類例를 찾아 볼수 있는 폭탄 선언을 하였다. 이것이 1953년의 韓國戰爭休戰후에 미국의 온갖 分野, 정예 학자들을 소집하여 「全體主義」에 대한 거국적 학회를 司會한 프르드릿히 교수의 선언이었던 것이다.(그의 편저「全體主義」 1954, 序文)

그런가하면 미국의 와트킨스(F. M. Watkins)교수는 그의 저서 「서양의 정치적 전통」(1957)에서 「동양 종교는 관헌들의 아편 종교」 이고 오직 기독교만이 「격동과 불안」에서나마 결국은 하나님의 뜻인 기독교 왕국을 성취시킬 것이라고 선언하였다.(「The political tradtiion of the west」 1957)

6. 「헤겔(Hegel), 벤담(Bentham), 맑스(Marx)

사실 19세기의 헤겔, 벤담, 맑스가 上述 20세기의 서양 학자들의 지적들을 여실히 밑받침하였었다. 18세기의 계몽사상과 産業革命이 19세기의 구라파 민주주의를 동양의 복합시대사 복합변증법으로 이끈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 「헤겔」이 기독교 정신에서 세계사 변증법적 역사철학을 전개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닌 것으로 그는 窓 앞에 지나가는 나폴레옹을 보고 神이라고 생각한 청년기의 崇仰이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실은 후진 구라파 민주주의 국가들을 선진 열강들 압력으로부터 해방시킨 영웅이었다. 그러나 그 나폴레옹을 기어히 패배시킨 선진 열강들의 「신성동맹(Holy alince)」군이 러시아 중심으로 이뤘졌다. 「고대체제」를 회복케 하려는 것으로 나폴레옹을 센토헤레나 운명이게끔 한 것이다. 이것이 18세기 중엽에 영국 방직물 생산 기계력에서 産業革命이 트여 19세기에는 구라파세계 일원적인 산업혁명이 되었었다. 이것을 반영한 영국인 벤담(J. Bentham)의 자본주의 공리자유주의 放任주장인가 하면 독일인 맑스(K. Marx)의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유물史관 공산주의 대결이 된것이다. 이에서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 투쟁이 본격화된 것으로 벤담은 과거 手工業生産이 기계력 생산인 大量우수상품 홍수같은 쏟아짐이 된데 대하여 자본가 공리자유주의를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특권 귀족층의 간섭을 물리친 그러한 것으로 신흥 시민사회의 資本家들을 옹

호지지한 것이다. 이에 比해 맑스는 특히 불란서에 중세의 농노 봉건제 잔제가 농후히 남은 것을 두고 이른바 농노(農,勞) 「잉여가치(剩餘價値)」를 수탈하는 것이라고 공산주의 혁명론을 내세운 것이다. 이것이 17, 8세기의 「홉스」 "Leviathan"과 「록크」, 「루소」의 몫이 벤담, 맑스주의로 나타난 민주주의 이름 아님이 없는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 불가양립적 대결이 된 것이다.

進化이자 革命, 革命이자 進化인 민주주의 엇갈림 大충격, 갈등인 것으로 이것이 20세기에 들어 兩次世界大戰으로 발전한 것이다.

그 모두가 15세기 세계 발견 이래의 西力東侵으로 古代회고인 中世克服 近代化로 변증법된 것이 그 나름 복합 충격된 그러한 것이다. 이것이 서양 세계 팽창 "Leviathan" 제국주의 움직임인 마키아베리즘적 프라그마티즘이자 프라그마티즘적 마키아베리즘임은 上述하였거니와 서양학자 20세기 大家들이 여러 가지 의미로 평가 지적하였음은 후술할 것이다.

Ⅳ. 동양의 同化主義적 胡漢交替史의 경우

1. 漢代 이후의 胡漢交替史와 그 同化主義적 발전

漢武帝의 北伐成功과 중앙 아세아 경영이 중세 구라파 世界를 등장케하고 그들 근대기의 근대화·민주주의를 영향케한 온갖 정신, 물질적 진전이게끔 하고서는 중국 그 자체는 三國時代를 거쳐 五胡, 16國 南北朝 시대가 되었었다. 이를 隋, 唐이 平和 統一하여서는 後唐 五개국인 胡族 侵入이 따랐었다. 宋의 天下統一 文化主義가 遼, 金의 侵入, 蒙古族의 世界征服, 中國에서의 君臨, 大元帝國 成立이었다. 이야말로 서양 中世의 諸族 돌과 동양 중국의 五胡 16국 이래의 온갖 東西南北 이른바 東夷, 西戎, 南蠻, 北狄들을 총괄적으로 종합 통일한 世界史上 最大帝國인 것으로 마르코폴로가 敎皇의 親書를 받들어 元의 3대 世祖(쿠빌라이)에게 奉呈하여 寵愛를 받은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정복주의 元을 150년간 운명으로 滅蒙興漢케 한 明태조 朱元璋이었다. 그러나 그 明도 2百數十年 끝에 女眞族 淸이 交替하여 그 淸은 근대기 500년간을 訓詁學적 儒敎로까지 漢民族文化에 同化

하였다. 淸末에는 西力東侵의 영향인 天主敎도 洪秀全의 太平天國 亂을 曾國藩이 英人協力으로 평정하였다. 이어 康有爲의 大同사상과 梁啓超의 自由민주주의가 대립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즉 上古 춘추시대의 孔子 大同사상과 20세기 자유민주주의를 한꺼번에 중국 복합시대사 복합 변증법적 종합으로 성취시키려는 19세기 말 중국 사태에 대한 표현이었다. 이것이 滅淸興漢인 孫文의 三民主義로 그 구체적 종합 해결 정책으로 나타난 바, 그 민생, 민주, 민족주의 중 민생(民生)은 실은 「자본균등」이고, 민주는 그나름 민주주의 자유, 평등, 민족은 민족 자주 독립을 주장한 것이다. 西力東侵에 대한 그러한 것이며, 중국의 有史이래의 복합시대사 복합변증법적 종합 해결 표현인 것이다.

민생의 「자본균등」이 서양의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를 자본 균등으로 止揚하려는 변증법적 종합해결인 것임이 명백하다.

이와같은 孫文의 三民主義가 장개석, 모택동의 국공분열과 등소평의 개혁으로 나타난 그나름 중국형임은 후술할 것이다.

2. 중국「井田制」원리 전통과 唐, 宋代의 정책수준

井田制 원리가 어떠한 것인가는 上述 하였거니와 儒敎를 국교로 삼은 漢武帝 이후의 胡漢交替史가 漢民族의 同化主義的 전통이 胡族들 侵入에 의해 유린된 갈수록의 혼란 착잡이 되었었다. 과거에 춘추전국시대가 奉始皇의 武力統一인 天下 상업자본주의적인 부국강병 15년간의 短命이었기는 하였었다. 그러나 漢의 革命과 井田制 만회인 복합시대史 복합 변증법적인 역사발전 苦憫相은 5호 16국 시대이래의 胡族들 侵入교체에서 그 文物主義가 파괴된 혼란 극치가 된 것이다. 이미 漢代의 국경지대에는 국제 市場이 들끓었고 宋代의 首都 汴京은 바로 그 국제시장의 中心地가 되었었다. 井田制가 완전 파멸되어 土豪, 官憲들이 수탈하고 농민들의 離農하는 등 세금 포탈이 극도에 이르렀다. 흡사히 서양 中世의 兩劍論 세계가 近代期의 近代化로 겪은 500년간의 종교, 정치 경제 충격 갈등을 중국으로서는 한꺼번에 종합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唐·宋대의 苦憫相이었다. 서양 중세가 암흑시

대라고 하는 것과는 달리 중국 唐·宋代의 文化 황금기, 그러한 것으로 중국은 이미 唐代에 胡族들 유린인 전통파괴에서 封建制가 완전히 무너져 재정 파탄이 극도에 이르렀다. 이에 숭기한 安史亂등, 宋代에서는 그 天下大亂을 현대적 수준으로까지 구제하는 超시대적 政策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王安石의 新法이 그것인 것으로 그는 「靑苗法」에서 貧農을 구제하고 「市易法」에서 市場경제를 均衡化시켰다. 「모역법」으로 勞務대신에 金納케 하고 과잉자산을 흡수하여서는 土地를 等級別하므로서 稅率을 차등하였다. 그리고 160步 범위의 方田法으로 租稅公正을 期한 등, 戶數에 따라 保單位를 編成하여 治安케도 하였다. (보갑법) 그 시장내지 물가조정이 現代的 과학성을 다한 것으로 교육제도를 重視하고 黃河를 浚渫하여서는 水路를 개척하기 겸, 농토경제와 도시경제를 균평케하였다. 王安石의 신법은 그만한 成果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王安石의 施策에 대하여는 司馬光등 온갖 反對派들이 들끓어 自由放任하라고 외치기도 하였는가 하면 王安石의 단호한 政策이 成果된데서는 그들 悔改가 따르기도 하였다. 요컨대 중국 中世가 20세기 현대적 수준에도 이르렀음을 증명한다.

DAEJIN
SINCE 1996
Daesoo Philosophy Institute

V. 세계史 원환운동과 그 귀추

위에서 동서시대史 구조와 세계史 원환운동 및 그 東西史 발전등 증산이 말한 先天史자취를 살폈다.

세계史 원환운동은 무시(無始)이래 과거, 현재, 장래 영원의 존속인 것이다. 지구가 자동적으로 회전하면서 태양 중심의 공알도(公軋道)를 선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러한데 있어 인간의 역사가 저마다의 좌표 따라 변동하는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닌것으로 이를 자고로 東西를 막론하고 변증법적으로 사색한 역사 철학이였었다. 그 증산이후 이른바 後天史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면 다음과 같다.

1. 20세기의 兩次大戰과 東西 4강

20세기의 양차 世界大戰에서 증산의 이른바 先後天史가 分水嶺된 것임은 戰前 戰後의 사태 비교에서도 용이히 알 수 있다. 더구나 東西 4강에 중심된 그러한 것으로 그나름 先後天史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미국의 경우

미국은 18세기말에 태서양(太西洋)을 건너 신대륙에 건국하였다. 모국인 영국의 청교도혁명에서 「오리뷔, 크롬웰」에 의해 좃겨난 「수평파」(Levellers)들이 그들 시민사회 중산급 자유민주주의를 신천지 무풍상태에 급속히 확연시켜 처음서부터 빈부격차 없는 평등 자본주의를 보편화하였다. 「기회자유, 평등」을 경합한 프라그미티즘(實用主義)이었던 것으로 이것이 「페퍼슨」대통령 데모크라시를 거처 19세기 중엽에는 16대 대통령 「링컨」에 의한 남북전쟁 단행으로 남부 농노(農奴) 흑인들을 해방시켰다. 그런가 하면 20세기에 들어서는 「루즈번드(F. Rooseveld) 대통령의 「뉴딜」(new deal) 정책강행으로 농산물 가격을 배(倍)로 결정하고, 1년간 휴경케 함으로서 농산물 풍작을 보장하고 그 동안에는 도시에 진출케하여, 상공업에 종사케도 한등 농민의 근대화와 수익(收益)을 또 배갑절이게금 하므로서 미국자본주의를 계층없는 대 자본으로 육성한 공고(鞏固)화 다짐을 한 것이다. 그는 미국헌법상 있을 수 없는 3선 대통령도 되어 반대세력들과 사법권 우월을 뒤엎어 입법, 행정, 사법을 함께 장악한 독재 전제군주같은 실권을 민주주의 이름에서 행사하였다. 그러므로서 1차 대전에 참여하여 자유주의를 승리케하고 전후 세계 대공황(恐慌)을 구제하였을 뿐만아니라 미국 자본주의 자체도 파탄이 될 위기를 구제하였다. 그는 2차대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유진영을 승리케 하였다.

이상과 같은 것은 신천지에 건국한 신생국가로서만 가능한 것으로 미국에는 증산의 이른바 先天史같은 것은 없는 것이다.

2) 소련의 경우

1917년에 공산주의 혁명으로 미국과는 불가양합적인 대결이 된 소련은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과는 대서(對蹠)적 이었다. 첫째로 그들 스라브 族은 옛날 中世에는 비잔틴(동로마)제국에 종속하였다. 그것이 동제국 멸망(15세기)후에는 그 衣鉢을 이어 희랍 正敎와도 함께 그들 故土에 도리와 「로마노프」 王家 회복을 하였었다. (16세기) 그리고는 옛날 몽고族의 西로 달린 구라파정복과는 반대 방향인 東으로의 습격이 되어 중국 淸朝와 「네루친스크」 조약으로 간신히 국경선이 그어진 淸의 방어(防禦)였었다. 이것이 1917년에 「레닌」의 공산주의 혁명으로 帝政러시아가 공산주의 민주 연방이 되어서는 미국의 자본주의 연방체제와도 비슷한 그나름 또한 신생국가형이었다. 그러나 불가양립적인 대결이 되었는가 하면 2차대전에는 미국과 손을 잡은 남북협공(挾攻)으로 獨伊 나치즘 파시즘을 타도하였다. 주목할 일은 그 미, 소, 독, 모두가 민주주의 이름 독재정치었음과 미소 함께 마키아베리즘적 프라그마티즘 타협이었다.

3) 일본의 경우

신무(神武)천황 건국이래 2600년동안 만세일게 라는 신국(神國)주의 일본은 천황, 사무라이(武士)교체의 역사형을 더구나 근대기 300년간은 두구가와 막부, 사무라이 封土, 封建制정치였었다. 그 종주(宗主)권자 막부정치가 서양의 中世 兩劒論 兩劒을 함께 장악한 位階制 사무라이 정신 수련을 근대기에 한 셈이다. 그것이 19세기 중엽에 대정봉환(大政奉還) 명치 유신을 태평양을 건너온 미국 배경으로 이룩하였다. 그리고는 정한론(征韓論) 내란까지 거쳐 1910에 한반도를 병합하고 위성격 만주국을 설정, 「로구구」 사건조작으로 중국을 침공하였다. 2차대전에는 서양의 히틀러, 무솔리니의 千년 기독교 왕국 건설이라는 제 3제국주의와 손을 잡아 「대동아 공영권」구축이라는 樞軸국 일원으로 미, 소, 중에 도전한 것이다. 이를테면 世界史를 나름나름 뜻대로 전환케 하느냐 못하느냐의 3대 3의 死生결단 판인 것으로 그 모두가 프라그마티즘적 마키아벨리즘이었다. 그러나 獨·伊·日은 모두 패배하여 옛날 중국 전국시대의 秦의 6국 통일 같은 꿈은 허사로 돌아갔다.

4) 중국의 경우

오직 중국만이 자고로 방어형(防禦型)으로만 관통하여 2차대전의 승리국이 되었었다. 일본을 방어한 패전 거듭으로 후퇴하였음에도 일본에 대한 소련의 선전포고와 미국의 원자탄 투하로 승리하여 자유주의 진영에 든 것이다.

이와같은 사실은 중국으로서는 심히 수기(數奇)적인 것이었다. 국공(國共)이 분열하여 장개석과 모택동이 대결한 것이 일본을 방어하는 데서는 합작이 되어 전후에서는 또 분열되어 모택동이 장개석을 쫓아낸 공산주의 혁명으로 本土전체를 장악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개석의 자본주의 대 모택동의 공산주의는 그 모두가 국부(國父) 손문(孫文)의 3민주의를 실천한 과도기 현상이었음이 드러났다. 손문의 민생, 민주, 민족 3민주의 중의 「민생(民生)」은 실은 「자본균등(資本均等)」이었고 「민주」는 민주주의이며 「민족」은 민족자주독립이었음을 장개석, 모택동이 저마다가 3민주의 正統이라고 自處한 자본주의, 공산주의 분열인 것으로 중국 上古來 井田制가 20세기 복합시대史 복합변증법으로 나타난 것이다. 중국이 처한 당대 사회경제가 「자본균등」이라야할 자본바탕부터를 건설해야 할 장개석의 자본주의였었고, 모택동은 그것을 공산 이상주의로 못 박는 그 나름 자유, 평등, 영원의 理想國였던 것이다. 농토자본을 절대다수인 농민에게 균등히 배분하여 그 소산물을 전적으로 농민에게 귀속시키려는 공산주의인 것으로 그 모두가 구경목표는 「자본균등」효능임에는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나름나름 복합시대史를 세계 복합시대史형으로 조정하는 구상이 그럴만한 세계史 조류와의 관계인 것이다.

사실 모택동은 人民公社를 설정하여 흡사히 미국 「뉴딜」정책 같은 구상이기도 하였다. 농토를 농민에게 균배(均配)하여 그 소산물을 전적으로 경작농민에게 귀속시키는 한편, 상공업까지도 종사케하여 그 수익(收益)을 또한 농민에게 귀속시키려는 것으로 그런식으로, 근대화 민주주의도 한꺼번에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영구혁명론(永久革命論)』주장까지도 하였었다. 즉 봉건 특권층으로부터의 자본주의 혁명과 공산주의 혁명을 한꺼번에 하고서도 남을 혁명 필요를 영원히 보장하는 그나름 이상 극치인 중국 역사 나

름의 悲壯인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은 솔직히 말하여 미국의 「뉴딜」(new deal)정책과 소련의 공산주의에 대하여 영구혁명으로까지 결국은 「자본 균등」을 周代 井田制 이상형으로까지 永久 혁명하겠다는 것임이 명백하다. 즉 모택동은 그것을 처음서부터 「자본 균등」인 공산 사회주의로 못박자는 것이다.

이와같은 것이 중국 本土의 복합시대사 복합변증법적 20세기 현황에는 해당할지 모르는 영원의 이상은 될지나 20세기 世界史 구조에 비쳐서는 그럴 수 없는 실패가 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과연 모택동의 人民公社는 완전히 실패하였다. 역시 중국의 과거史 증명이기도 한바 모택동 死後에는 동료(同僚)인 「등소평」이 자유주의를 도입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장개석의 자본주의를 자본주의 아닌 응용형으로 접목시킨 그나름 모택동사상 발전형이라 할 수 있다. 아무튼 그 전도는 未知數에 속하는바 世界史 움직임이 중국에 매인 앞날 전개일 증조가 보여지기도 하는 것이다.

5) 여외 전후세계의 변동

2차대전후의 世界史 변동이 역시 2차대전때의 동서 4강의 움직임과 밀접한 관계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의 지도적-역할에 중심되어 러시아의 변동과 서독의 동독 통합이 공산주의를 자유주의적으로 전환케 하고 있는 것으로 요컨대 미국의 「뉴딜」정책 성공에 배경된 것이다. 동양에 속하는 일본만이 심히 기화주의적인 옛 꿈을 이제도 잊지 않고 있는 듯, 2차대전에 패배하여 물러간 그들이 역시 미국배경으로 경제 大國이 되어서는 이제는 차민당을 비롯하여 종교 배경인 공명당과 공산당, 그리고 있을 수 있는 온갖 사회주의 정당인 다당제 구비로 또 예의 「기회 자유, 평등」을 노리는 융통자게의 동태(動態)인 것이다.

6) 脫 이데올로기 적 實利主義 문제

전후세계에 2차대전을 도발한 나치즘, 파시즘의 카리스마 이데올로기에 놀라 그것을 회피하는 「脫이데올로기적 實利主義」 조류가 비등하였다. 그

러나 그것이 카리스마 이데올로기의 半面인 예의 「기회 자유, 평등」노림이거나 무조건 그 설침인 프라그마티즘 마캬벨리즘 혼동인 異色版임이 드러나는 것이었다. 힘의 과시가 그 특징이기도 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20세기 서양 학자들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론하거나 충고 경고 또는 솔직한 고백을 한 저서,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미국의 「헌팅톤(Huntington)교수가 「이데올로기로서의 부수주의」(1957)라는 논문에서 「보수주의라는 것은 그침없는 도전에 대한 방위(防衛)적 이데올로기라 하여서는 그러나 변화에 적응하는 측면을 갖지 않은 것은 아니다」하였다. 소련 공산주의 위협에 대한 그러한 미국이 자본주의적 보수주의임을 말한 것이다. 18세기 말의 불란서 大革命을 비판한 영국의 「에드먼드, 버커(Ed.Burker)의 보수주의를 가장 보편적인 타당성을 갖는 「상황적 보수주의」라 하였다. 그리고는 「보수주의는 실체(實體)적 이념(理念)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미국의 프라그마티즘을 반영하여 더구나 「통일적 성격」이라 하였다. 즉 어느 민족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實體없는 통일적 성격인 보수주의라고 미국 자본주의를 전후 世界史 전체에 걸쳐 옹호 대변한 그나름 함축 깊은 선전 효능을 담은 것이다.

「벅커」(Becker)가 전체주의에 밑받침된 전체주의적 민주주의, 민주주의적 전체주의임을, 「마리옷트(Mariott)」는 전제군주 또는 독재자가 민주주의의 母體라 하였는가 하면 세이반(Sabine)이 민주주의를 「心理적이기 보다는 知적 技術」이라고 한 것들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과연 미국의 프라그마티즘 철학을 大成한 「듀이(J. Dewey)」는 「無反省 단계」와 「有反省 단계」를 交互하여 행복을 추구하는 행동주의 철학을 주장하였다. 즉 환경조건이 순탄한 경우에는 「무반성단계」로 환경조건이 역경인 경우에는 「有반성단계」로 나아가는 경험과 성찰(省察) 交互로 행동해야한다는 것으로 그 프라그마티즘 철학이 경험주의, 실험주의, 도구(道具)주의 실용(實用)주의를 겸한 그나름 사실 논리 합리성 주장인 행동주의 철학이 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에대해 서철(西哲)인 독일 「뷘델반드(W.Windelband)」가 수단과 목적이 거꾸로 선 유령 철학이라고 맹열히 비판하였는가 하면 (Die philosophi in deutechen geisterlehven 19 jahrhundet) 미국의 「프르드릿히」(C. J. Friedrich)교

수는 「니이체」의 예를 들어 서양기독교 사회의 철학들과 프라그마티즘, 「헤에겔」주의 實存主義들을 비판하여 그 책임이 新敎主義, 프로테스탄트들에게 못지않게 있다고 선언하였다. (그의 편저 "Totalitarianism, 1954) 그리고 「민주주의는 서양세계에서는 희망을 가질수 없고 오직 동양세계에만 기대할 수 밖에 없다는 폭탄선언을 하였다.

과연 무슨무슨 주의(主義)니 등 프리그마티즘적 마키아베리즘일수도 마키아베리즘적 프라그마티즘일 수도 있는 脫이데올로기적 實利主義를 비판배격하더시의 2500년전 중국 춘추시대 孔子大同思想과 전국시대의 荀子至平사상이 나타났다. 바로 그때에도 지구가 自轉하는 公軌 道旋回인 중국 좌표에서 복합시대사 변증법적 종합 해결로 쏩한 위대인 것이다.

VI. 孔荀大同, 至平사상이 뜻하는 것

「나의 道는 一以貫之」라 하고 「述而不作」이라고도 周代의 井田制 原理와 문물 제도 황금기를 회고한 춘추시대 孔子의 大同사상은 다음과 같다.

「대도(大道)가 行하면 천하위공(天下爲公)하여 현인(賢人)을 천거하고 권능을 부여하여 신의(信義)를 밝혀 수목(修睦)한다. 그러므로서 사람은 그 어버이만을 어버이라 하지 않고 그 아들만을 아들이라고 하지 않는다. 노인은 천년(天年)을 다할 수 있게 하고 장년자(壯年者)는 쓰일바 있게 하며 어린자는 장성(長成)할 수 있게 하고 과부, 홀애비, 외로운 자와 폐질자는 수양(收養)될 바 있게 한다. 남자는 직분이 있고 녀자는 귀착되는바 있다. 재화(財貨)는 땅에 버려짐을 싫어함이나 그렇다고하여 자기 혼자만에 장치(藏置)하지 않는다. 힘은 몸밖에 나오지 못함을 싫어함이나 그렇다고하여 반드시 자기 혼자만을 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략(謀略)의 길이 닿쳐져 일어나지 않으며 도절난적(盜竊亂賊)인들 나타나지 않는다. 바깥 문(門)은 있으되 닫지 않으니 이를 대동(大同)이라고 한다.」 (孔子, 禮運篇) 전국시대의 순자(荀子) 至平사상은 다음과 같다. 그는 인간의 공리성(功利性)을 시인하였다. 그리고 이익을 적절히 충족시켜주는 정치라야 할 것과 民生의 복지균등이라

야할 바를 주장하였다. 이것이 때와 장소, 경우에 따라서의 저마다의 기회 자유, 평등이 되도록 民生을 그르쳐서는 안된다고 그것이 국내, 국제 경제 교류, 유무상통의 자유이며 넘치는 것은 덜어 모자라는 데 보태주는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는 「仁人이 上位에 있으면 농상공이 각기 직능의 선미(善美)를 다하게 될 것은 물론이어니와 온갖 上下관직, 나라마다의 수령에 이르기까지도 仁厚智能하므로서 관직책임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갈파(喝破)하였다. 荀子는 그것을 至平이라고 하였으니 그 이유인즉 「혹(或)은 천하(天下)를 녹(祿)하여도 스스로 많다 하지 않고 혹은 監門(守衛), 어려(御旅, 버스, 택시 업자)」 포관(抱關 - 군민) 격절자(擊折자 - 夜警자)에 있을지라도 스스로 적다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차등(差等)하면서도 제평(齊平)하고 왕(枉 - Z 아닌 S)하면서도 순(順)하고 부동(不同)하면서도 한결같으니, 이를 인륜(人倫)이라 하는 것이다.」[1]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孔, 荀의 大同, 至平 사상은 솔직히 말하여 오늘날의 수준 높은 국가에서는 정도차이에서나마 이미 향유(享有)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것이 오늘날 지구촌 우주시대라는 세계사 원환운동의 사실이며, 종교여하를 막론하고 人道主義(유교)를 한결같이 내세우는 세계 大 현상인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서양 기독교와 증산 사상과의 관계로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1. 기독교와 증산사상

기독교에도 후천개벽적인 것이 있다. 一神이 인간을 포함한 만물을 창조하여 인간에게는 신(神)의 모습과 신의 호흡을 불어넣어 인간 시조인 「아담」과 「헤와」를 창조하였다한다. 만물을 지배하라 하였고 그 자손만대의 영원의 복락번영일 것을 약속도 하였다.(成約) 그러나 그 아담, 헤워가 神의 계명(戒命)인 금단(禁斷)의 과일을 따먹은 원죄(原罪) 탓으로 에덴 동원으로부터 쫓겨나 죽음과 고난길이 선포되었다. 그러나 神은 「노아」의 방주등, 새인간 선별로 그 자손들중에서 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1) Z는 혁명, 충격이며 S는 有無 상통인 태국 음양 관계임

는 것이다. 이점 기독교 一神도 제2의 후천개벽을 한 것이라고 할 수있다. 그러나 증산처럼의 「해원상생, 후천개벽」이 되는가의 여부가 문제인 것으로 「예수」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것이 비슷한 뜻이 된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원수라 할 것 같으면 이미 상생(相生)일수는 없는 결정적인 뜻이 되는 것이 아닐것인가? 서양 16세기의 종교개혁, 종교전쟁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구, 신교가 서로간에 불가양립적인 원수가 되어 150년간이나 서로간에 죽이는 혈투사(血鬪史)를 연출한 것이다. 이점 「바아소로뮤」 학살사건에 대해 저자 未詳인 「폭근방벌증론」자가 神과 군주간의 제1계약, 군주와 인민간의 제2계약을 말하여, 제2계약인 군주, 인민간에서는 신교도들을 幽閉학살한 구교전제군주가 폭군임이 의심의 여지가 없기로 폭군방벌 趣意이었었다. 그러나 神과 군주간의 제1계약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 수 없는 것이 된다. 神이 人民을 羊처럼 거두어라하였다지만 주인에 順從하는 羊과 항거한 羊이 동일할 수는 없는 일이다. 여기에 모두가 神의 뜻인 王權神授와 受動的 복종의무이고 보니, 그 대상들인 羊(人民)은 어느 쪽에 따라야 할 것인가가 알수 없는 엇갈림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 기독교 세계는 저마다 神의 뜻이라는 구신교 대결 불가양립적 血鬪史를 世紀半長이나 한 셈이 된다. 이를 두고 「구로튜스」가 神이라 할지라도 운운의 자연법 진리를 數理적 과학성으로까지 선언한 것이다.

증산은 바로 그 자연법을 오늘날의 지구촌, 우주시대 차원으로 실천한 「至氣主義」였었다. 「宙宇詠歌」, 「宙宇壽命」 「願爲大降」등 그 지극한 氣가 지구촌에 내려오기를 기원한 것임을 그분의 眞作인 玄武經이 증명한다. 그러므로서 지구촌 인간들이 그 자연법 진리를 실천하여 해원상생 후천개벽이도록 천지공사를 하신 것이다. 과연 인간은 오늘날 달나라에 이미 다녀왔고 火星, 木星 우주정거장등 우주시대의 旅程에 오르기도 하였다. 뿐만아니라 TV등 앉은 자리에서 세계 각처의 실제를 原色 그대로 보고 듣고 알기도 사업거래도 하는등 앞으로는 자연과학기술 황금기 같은 전망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의 최종열쇠는 「해원상생」이 되느냐의 여부에 매인 것으로 아직도 지구촌 각처에서는 묵은 원한에 매달려 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를

위기를 주름살하고 있다. 말세론등, 인류전멸을 공공연히 외치는 사교(邪敎)들이 유행하고도 있다.

강증산은 19세기 말엽에 불, 보살과 동서 제 神들의 간청에 따라 天下를 大巡하여 한반도 金山寺 미륵불에 托灵한 30년만에 출현하시어 20세기 벽두 9년간 「해원상생」천지공사를 하셨다는 것이다. 그때까지의 이른바 지구촌 원한 사무침을 깨끗이 청산하여 도리어 서로간을 살리도록한 후천개벽 천지공사를 하셨음을 玄武經과 典經이 전하고 있다.

2. 불교불법만의 우주시공 「해원상생」 진리

자연법, 인도주의, 기독교 神의 경우를 이때까지 밝혔거니와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인 「해원상생」은 오직 불교불법의 「양생」원리만이 거기에 답하는 뜻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로가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양생이기 때문이다.

첫째로 부처님께서는 원한 사무침이 인간의 無明三毒인 탐, 진, 치(貪, 嗔, 痴)에 인연(因緣)되고 인과(因果)되는 바임을 우주시공 과학성으로 깨우쳤었다. 前生과 今生의 그러한 윤회相이기도 하는 바 그 무명삼독을 벗어나는 해탈(解脫) 自由에서 영원의 평화 복락일 열반(涅槃)이 됨을 설법하신 것이다. 그 「사실논리 합리성」을 제자인 아란(阿難)에게 問答을 통해 터득토록 하시기도 한바 다음과 같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우주시공에 항하(恒河) 모새 數 같은 天體들이 퉁겨져 저마다의 角度로 윤회하는 바임을 그야말로 우주과학 분석으로 밝혔었다.(능음경) 그리고 각 天體마다 神이 있어 主宰자임을 자처하는 바 그 모두가 중생임에는 다를바 없는데 있어 95종이나 되는 사견(邪見)이 있다고 온갖 意識종형 있을 수 있는 流動相 분석으로 해명하셨다. (同上) 이것이 제자 아란에게 鍾을 쳐 들리느냐, 아니 들리느냐를 칠때의 소리 들림과 머질때의 들리지 않음에 따라 답하게 하므로서 보고, 듣고, 냄새맡는 등 六識이 眼, 耳, 鼻, 舌, 身, 意가 아니고 「마음」의 성품임을 터득케 하셨다. 즉 견성성불(見性成佛)이게금 하신 것이다.여기에 불교가 동서 제 大종교 중에

서도 종교위의 종교인 大종교인 소식이 있다. 이를테면 온갖 종교들을 우주시공 진리로 포섭하여 그 사실 논리 합리성을 우주시공 진리로 변증법적 종합 해결한 그야말로 우주 과학적 大종교인 것이다.

불교의 大慈大悲는 기독교 一神의 절대 권위주의적인 「사랑」과는 다르다. 중생도 부처와 다름없는 「生佛不二」이고 「眞俗不二」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양 기독교 세계 16,17세기 이래의 종교, 정치, 사회, 경제의 온갖 자가모순 당착 流血史에 대한 완전 해결의 뜻이 있다. 즉 神, 人이 구별되면서도 혼동되는 충격 갈등은 불교에는 없는 것이다.

大慈大悲는 중생이 부처님과 다를바 없고 眞諦와 俗諦가 다른 것도 아닌 데서 성립한다. 오직 無明三毒인 탐, 진, 치(貪,嗔,痴) 먹구름에 덥혀 보들 못하는 것을 크게 슬퍼하여 그 무명삼독을 없애어 보게 함으로서 부처님과 다름 없는 大慈이도록 하신 것이다. 이처럼의 위대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인간 스스로의 해탈자유인 人尊임에서랴!

貪·嗔·痴에 얽힌 인간 서로간의 원한 사무침을 풀어 함께 그릇됨을 벗어나는 해탈과 평화복락, 우주 시공대 진리처럼의 영원이 되라는 것이다. 그야말로 5만년 선경 比가 아닌 우주 시공과 더불어 하는 地上佛國土 모습인 것이다. 老子 도덕경 자연법을 불교적으로 실천하여 유교 범절인 孔荀 大同, 至平사상으로 서양 기독교 세계를 변증법적 大종합 해결케한 그러한 것이다. 증산의 宙宇詠歌, 宙宇壽命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없다.

결 어

지구촌 圓環운동이 人類 발생 이전 無始이래의 것이며 그 「반본환원」인 영원의 지구 自轉, 공괴도 선회에 있어 다음 같은 사실이 이미 나타났음을 크게 주목할 일이다.

서기 7세기의 한반도의 3국통일 신라가 서양 古代, 中世, 近世 각 500년간의 충격인 1500년간을 통일신라 전후 1000년간과 고려조 500년 불교왕국평

화로 관통하였었다. 근대기 李氏조선 사대주의 배불숭유 500년간에서 오늘날 민족사 현황이 되고 있는바 증산께서 19세기 말엽에 이 땅 金山寺 좌표에서 출현하시어 해원상생 천지공사를 하신 것이다.

세계사 원환운동이 東에서 西로 西에서 東으로 이제는 東에서 西로 접어드는 무량세월 번복 과도기인 것이다. 증산이 出現하신 한반도 민족사 좌표가 그 핵심이 되는 것으로 민족사 南北平和統一과 그 세계사에 대한 使命수행이라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가지만을 첨기한다면 「해원상생」은 「있는자」 측에서 「없는자」측에 실천하는 솔선 수범이라야 할 것이 된다. 우리들 상식에 속하는 일로서 그러므로서만 없는자 측도 해원상생이 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본균등」이 되는 민생, 민주, 민족 자주 독립일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世界史 귀추라 할 수 있다. 바로 변증법적 종합해결인 中道 모습이 그러한 것이다.

DAEJIN
SINCE 1996
Institute of Daesoon Thoughts

【참 고 문 헌】

주요한 것은 本文 당해 處에 지적하였다. 그외의 약간 주요것을 지적하기로 한다.

(1) C. R. Morris, Loke, Berklly, Hume, 1952

(2) F. M. Watkins, The political Tradition of the West, 1957

(3) C. J. H, Hayes, A. political and cultural History of modern Europe vol Ⅱ, 1952

(4) S. Painter, A History of the middle Ages, 1954

(5) S. Radhakrshnan, History of Philosophy Eastern and Western, vols Ⅱ

(6) R. Hofstater, Social Darwinism and American Thought, 1945

(7) F. Schumpeter, Imperialism and Sotial Clases, 1951

(8) Hegel, Samtliche Werke (eulilaums ausgabe) 2, 5, 7, 16. 1949

(9) Max Weber, Gesammelte augstatje jur Religions Sojiologie, 1920.

(10) R. Bendix, Max Weber, 1969.

(11) 曺佐鎬, 世界文化史

(12) D. Hollach, 기독敎暴露 (野澤協譯), 1968

(13) 孫文, 三民主義(中華民國 70년, 6?)

(14) 蕭公權, 中國 政治思想史, 上, 下

(15) 그외에 拙著, 東西政治思想史, 一潮閣, 1959 및
韓國政治思想史, 高大民族文化硏究所, 1965
그리고 高大在任, 丹霞散文論拾集